

2017년 하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7년 9월



하동군의회

< 연 수 개 요 >

- ▶ 연 수 국 : 러시아
- ▶ 기 간 : 2017. 8. 27. ~ 9. 1. (5박6일)
- ▶ 인 원 : 하동군의회 의장 외 12명
- ▶ 목 적
 - 해외 도시의 도시개발 및 복지, 환경시설, 관광자원 개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의원들의 견문확대를 통한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

목 차

I. 연수개요	2
II. 주요일정	3
III. 연수국가 및 도시 현황	4
IV. 방문시설 및 견문내용	12
1. Chempion 스포츠센터	12
2. 타우복지관	14
3. 고려인 문화센터	19
4.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22
5. 사할린 한인회	25
6. 사할린 재래시장	30
7. 사할린 향토박물관	32
8. 폐기물처리장 Spetszavod № 1	34
9.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38
10. 극동연방대학	41
V. 총 평	45
1. 연수성과 및 연수소감	45
2. 하동에 접목하고픈 기타 사례	46

2017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개요

■ 연수국 : 러시아

■ 연수목적

- 해외 도시의 도시개발 및 복지·환경시설, 관광자원 개발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 방안 모색
- 연해주지역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올바른 정치의 중요성을 상기
- 의원들의 견문 확대를 통한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

■ 연수기간 : 2017. 8. 27(일) ~ 9. 1(금) [5박6일]

■ 연수대상 : 군의원 7명, 의회사무과 4명, 집행부 2명

직	성명	직	성명
의장	정의근	의회운영전문위원	왕광득
부의장	하인호	의사담당	강백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환	의사직원	허진석
산업건설위원장	강상례	의사직원	박신영
의원	김진태	건설교통과장	이쌍수
의원	박성곤	자원순환담당	정대영
의원	손영길	참가인원	13명

II

주요일정


일시	장소	주요내용
08.28 (월)	Chempion 스포츠 센터	· 선진 체육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및 설비관리 벤치마킹 · 시민중심 프로그램 현황 및 시민만족도 조사
	타우복지관	· 지역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 및 시설의 활용에 대한 이해
	고려인 문화센터	· 연해주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와 역사박물관 방문을 통해 올바른 정치와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상기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 블라디보스톡의 항만 활용 사례 견학
08.29 (화)	사할린 한인회	· 하동군의회와 사할린 한인회의 우호 교류 · 한인 동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 활동사항 청취
08.30 (수)	사할린 재래시장	· 사할린 재래시장 현장 체험을 통한 우리 지역 재래시 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
08.31 (목)	사할린 역사관	· 미래 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역사관 현장 체험
	쓰레기매립장 Spetszavod № 1	· 지자체의 환경 보존 정책 시찰을 통한 벤치마킹 · 폐기물 활용 현황 파악
09.01 (금)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운영현황 파악 및 우리 지역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재래시장 발전 방안 모색
	극동연방대학	· 러시아의 교육시설(스포츠센터, 기숙사 등) 벤치마킹 및 제3차 동방경제포럼 회의장 견학

III

연수국가 및 도시 현황

연수국가 현황

○ 일반사항

국 명	러시아(Russia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면 적	17,075,200km ² (한반도의 약 77.1배, 미국의 1.8배)	
수 도	모스크바	
인 구	약 1억 4,314만 명	
화폐단위	루블 (RUB)	
인 종	러시아인(80.9%),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1.4%), 기타 150여 소수 민족 (고려인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	
언 어	러시아어, 문맹률 0.6%	
종 교	러시아 정교, 이외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 등	
정부형태	연방제, 대통령제(6년 중임제), 의회민주제	
주 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옴스크, 예카테린 부르크, 카잔, 첼라빈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	
국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부터 하양·파랑·빨강의 3색기로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3색을 위로부터 각각 천상 세계, 하늘, 속세를 가리키는 우주적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이후에는 3개 동 슬라브국가인 백러시아(현 벨라루스)·우크라이나·러시아의 통합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가로세로 비율은 3:2이다.

러시아 지도



○ 국가 기원 및 역사

러시아는 12세기 모스크바공국에 기원을 두며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제국을 이루다 1924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거듭났다. 1990년 고르바초프의 냉전종식 정책으로 각 공화국들에 민족주의 분규가 일어나면서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해체, 독립국가가 되었다.

○ 위치

러시아는 극동에서 동부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북쪽으로는 북극해,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한다. 남쪽으로 북한·중국·몽골·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벨라루스·라트비아·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핀란드·노르웨이 등에 닿아 있다.

○ 행정구역

정식명칭은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으로, 행정구역은 46개 주(oblast), 21개 공화국(republic), 4개 자치 오크룩(autonomous okrug), 9개 크라이(kray), 2개 연방시(gorod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개 자치주(autonomous oblast' ; 예브레이)로 이루어져 있다.

21개의 자치 공화국은 독자적 헌법과 의회, 내각 및 자체 언어를 보유하지만 독립국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체첸을 비롯한 여러 자치구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독립국가연합

구소련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해 연안 3국 등 민족과 언어가 다른 15개의 공화국이 소련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들은 각각 독립되어 현재는 12개의 독립 국가 연합으로 분리되었다. 각 공화국은 독립국으로 독자적인 법률, 정치, 외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경제

러시아는 구소련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991년 구소련 전체의 국민총생산(GNP) 가운데 러시아는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경제침체는 갈수록 심화되어, 199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5년 러시아의 경제는 안정을 찾고 약간의 성장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1997년의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구소련의 부채를 떠안고 있던 러시아에도 영향을 끼쳤다. 결국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이후 연일 주가 폭락이 이어졌고, 경제지표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달러당 6.3루블이던 환율은 수출대금 50% 강제예치라는 극단조처에 힘입어 16루블선에서 겨우 안정을 되찾는 등 1998년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국제 유가(油價)가 높게 유지되고 루블 절하에 의한 수입대체산업의 회복 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 이후 푸틴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 재건'을 외치며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으로 독재자라는 칭호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의 러시아 증시는 시가총액이 780억 달러였으나 2007년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웃돌며 지난 6년간 러시아 주식시장은 13.5배가 성장했다. 실업률도 1999년 12.6%에서 2006년에는 7%로 약 50%가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6%이상, 2005년 외환보유고 2257억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편승하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앞세운 푸틴의 에너지 무기 정책이 일익을 담당한 결과이다.

○ 문화

러시아의 문명화는 문학, 음악, 발레, 미술 등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천년 역사의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인의 문화, 정치, 언어적 혁명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19세기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활동하였다.

19세기 러시아는 세계의 음악에 점차 공헌하기 시작하여 립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등을 탄생시켰다. 20세기에는 음악과 공연이 소련 당국이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빈스키 등의 세계적인 음악가를 계속 배출하였고, 1970·80년대는 재즈, 락, 포크 음악이 음성적으로 발달하였다.

러시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발레이다. 1734년 발레학교가 세워졌고 이를 계기로 발레가 발전하여 서유럽 발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러시아의 미술은 20세기 초반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냈다. 유명 화가는 샤갈, 칸딘스키 등이 있다.

스포츠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며 아이스하키, 테니스, 수영, 농구, 스키 등도 인기가 있다.

■ 연수도시 현황

○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 Владивосток)

인 구	약 62만명(극동 최대, 러시아내 20위)
면 적	331km ² (이 중 루스키섬 97.8km ²)
행정구역	프룬젠스키구 등 5개구
주요산업	수산, 조선, 물류, 관광, 서비스 등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극동지역내 국제협력, 경제·관광·교육·학술중심지 ·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 2015년 10월 12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법 시행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주의 항만 도시로 극동 최대의 도시이다.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극동 정책의 중요한 기지로 발전했다. 소련극동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해군기지이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북빙양 항로의 중점이며,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중점이기도 하다.

블라디보스톡은 1856년 러시아인이 발견하였으며, 그 후 항구와 도시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1872년 군항도 니콜라옙스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189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1903년 시베리아 철도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모스크바와도 이어지게 되었다. 1918년 봄부터 1922년까지 이 지방은 외국의 간섭군대에 의해 점령된 적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원조물자를 이곳에 양륙하였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은 ‘블라디(vladi: 정복하다)+보스톡(vostok:동쪽)’이라는 지명 그대로 1860년 7월 2일 러시

아 극동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시로 1800년에 도시 지위를 획득하였고, 1873년에는 러시아의 태평양쪽 주요 항구가 되었다.

항만은 포트르 대체만에서 남쪽으로 돌출한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반도 끝에 위치하며, 시가는 해안에서부터 구릉 위로 펼쳐져 있다. 철도 종점인 임항역(臨港驛)의 북쪽이 시의 중심지구이다.

중국, 한국, 일본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탓에 블라디보스톡은 일찍부터 무역, 외교,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890년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도시는 급진적인 성장을 하였고 전 세계의 무역 전문가, 자본가와 외교관들은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블라디보스톡은 연해지방 최대 어업기지이며, 포경선·게 가공선·냉동선의 근거지이다. 겨울철에는 항구 안이 다소 결빙하지만, 쇄빙선을 사용함으로써 1년 내내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다.

2012년에는 APEC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루스키대교 및 정상회담장 건설 등으로 군사용으로만 쓰이던 루스키섬을 개발하였다.

APEC 종료 후에는 정상회담장의 건물을 국립극동대학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다. 국립극동대학 내에는 해외 최초의 한국학 단과대학인 한국학대학이 있다. 1995년에 설립된 한국학대학은 5년제 과정으로 한국어학과·한국역사학과·한국경제학과의 3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밖에 태평양어업·해양학 연구소와 부속해양박물관이 유명하다.

또한 2016년 9월 박근혜 전대통령과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북핵과 사드 관련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곳이기도 하며, 최근 2017년 9월 6~7일 양일간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였으며, 푸틴 대통령과 북핵 등의 논의를 위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 우수리스크(Ussuriisk / Уссурийск)

인 구	약 20만명(고려인 1.5만명)
면 적	50km ²
기 후	전형적인 몬순기후(1월은 -20℃ ~ -24℃, 7월은 14℃ ~ 21℃)
주요산업	가죽 및 구두, 가구, 농산물 가공공장 등 2차산업 발달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 교차점, 블라디보스톡 공항과 연결하여 대중교통수단 발달 · 극동지방 타이가에 위치한 13개의 자연보호 공원, 각종 스포츠 시설과 문화시설(극장)이 발달

블라디보스톡 북쪽 약 110km 지점, 한카호(湖) 남쪽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동해로 흘러드는 우수리강 지류에 자리한다.

시베리아 철도와 하얼빈, 무단강, 둥닝을 연결하는 철도와의 분기점으로, 극동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이다.

제당 · 유지(油脂) · 식품가공 · 금속가공 · 선박 · 자동차부품 · 신발 · 양말 · 의류 등의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1886년 우수리 지방의 농업중심지로서 세워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경제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 하에 발전하였다.

원래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이라고 불렀으나, 1935년 보로실로프로 개칭하고, 1957년 다시 우수리스크로 개명되었다.

교육대학 · 의과대학 · 농업대학 등의 있고, 과학아카데미의 삼림연구소가 있으며 인근에 탄광이 있다.

우수리스크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펼쳤던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며 이상설선생 등이 머물렀던 유적지가 남아있다.

○ 사할린(Sakhalin / Сахалин)

인 구	약 49.3만명(유즈노사할린스크: 19.7만명, 코르사코프: 3.3만명, 홈스크: 3.0만명, 오하: 2.2만명)
면 적	871,000km ² (남한의 88%)
주요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주도), 코르사코프, 홈스크, 오하
민 족	러시아인(43.1만명-86.5%), 한인(2.6만명-5.3%), 우크라이나인(1.3만명-2.6%), 타타르인(0.5만명-1%)
구 성	사할린섬, 쿠릴열도
주요자원	석유, 가스, 석탄, 해산물, 목재 등
특기사항	·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이곳 탄광에 노무자로 끌려온 한국인과 그 자손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

사할린은 러시아 동부의 주로, 일본 홋카이도와 소야 해협을, 러시아 본토와는 타타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섬이다. 삼림이 울창하며 남부는 산악 지대이고 어업과 그 가공업이 발달하였다. 목재가 많이 나며 탄전·유전이 있다.

1875년에 체결된 '사할린·치시마(千島) 교환 조약'에 의해 사할린의 영유권이 일본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이양되었다. 러·일전쟁 후의 포츠머스 조약(1905년)에 의해 남사할린(북위 50도 이남의 부분)은 일본령이 되었다. 1945년의 얄타협정에서 러·일전쟁으로 침해된 러시아제국의 구권리 회복의 하나로서 남사할린을 소련에 반환하라는 방침이 미·영·소 3국간에 합의되었다. 1945년 8월 11일 소련군은 남사할린을 점거하였다. 1951년의 일본과의 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남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현재는 소련연방령 사할린이다.

IV

방문시설 및 견문내용

1

Chempion 스포츠센터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수), 10:00 , Chempion 스포츠센터
- 내용 : 선진 체육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및 설비관리 벤치마킹

□ 기관개요

- 주 소 : Partizanskiy pr., 44, корп. 5, Vladivostok, Primorskiy kray, 러시아 690106
- 전화번호 : +7 423 240 40 22
- 기본현황
 - 총 면적 18,000m²의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위치한 현대적인 복합 스포츠 센터
 - 약 60여 명에 달하는 전문 트레이너들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함.
 - 약 40종류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
-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보안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피트니스(체육관), 그룹 프로그램, 수영장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트레이너들을 고용. 보디빌딩 출신 또는 헬스클럽 강사, 인명 구조 자격자, 역도선수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트레이너들이 피트니스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룹 및 개별 프로그램은 스트레칭,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 피트니스

스, 필라테스, 요가, 테니스, 복싱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강사를 두고 교육하고 있음.

-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사과정 스포츠, 재교육 과정 등도 제공
- 체육관 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용 풀장, 공중목욕탕 및 사우나, 주차장 등의 시설을 포함. 또한 전문 코팅된 테니스코트와 배구코트 등 각 종목에 따른 코트도 갖추.

□ 방문사진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김종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클럽 프로그램은 우리 군에도 접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음.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의 통합개발, 자신감 트레이닝, 리더십 트레이닝 등 다양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음.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4:00 , 타우복지관
- 내용 : 지역 사회복지 정책 및 시설현황 파악

□ 기관개요

- 주 소 : ul. Pushkina, 5a, Ussuriysk, Primorskiy kray, 러시아 692512
- 전화번호 : +7 423 434 42 48
- 기본현황
 -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112km 떨어진 작은 도시에 불과한 우수리스크에 위치하고 있는 행려자를 위한 민간복지시설.
 - 약 40여 명의 행려병자와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본 복지원에서 생활 중임.
 - 교황청 산하에 있으나, 실제 운영은 한국 수도원에서 파견을 나온 수사와 수녀들이 맡고 있음. 실제 일하는 직원 수는 약 10명임.
- 사회주의 관념이 강한 러시아라는 나라에서는 복지나 봉사는 나라에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우리나라 수도원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체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았음.

- 타우복지관은 교황청 산하 수도원 총본부의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원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단기 복지시설. 러시아 최초의 행려자 복지시설이자, 연해주 최초 민간복지시설임.
-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 2007년 10월에 설립. 한국의 김용철 신부가 첫 책임자로 부임
- 행려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 가족연락망 구축, 신분회복에 대한 도움, 취업알선 제공, 알콜중독 치료, 종교지도자 주도 아래 피정 등의 업무들을 주로 함.
-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전혀 없으며, 러시아는 신분증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기껏해야 시설 입소자에게 신분증 발급 외에는 큰 혜택이 없음. 직원 중 간호사가 있어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며, 야간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상태 확인 후에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 후송하며, 복지관 입소자라는 확인만 되면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 가능. 신부의 노력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홈리스들을 차별하는 임시거처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그 곳에서 전염병 관련 일련의 검사들을 마친 후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본관의 리셉션으로 들어와 입소를 위한 서류작업을 마칩. 그 후 입고 있던 옷가지들을 벗어 놓고 몸을 씻으며, 옷은 위생상 대부분 소각. 일주일에 4회, 숙소에서 묵던 그렇지 않던, 희망자는 누구나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1회에 약 200인 정도가 식사를 함. 일주일에 1회 정도 미용, 법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도 운영됨.

□ 방문사진



시설견학 사진



복지관 역사 및 운영현황 설명



복지관 활동사진 관람



복지관 식당 관람



입소자 숙소 관람



입소자 재활프로그램 작품 감상

□ 질의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
김종환 의원	· 복지관의 재활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목공일이 대표적으로, 복지관에 놓여진 침대, 책장, 탁자, 옷장 등 모든 목재 가구들은 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 수제 비누를 제작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강상례 의원	· 복지관에 대한 사회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매스미디어와 협력하여 도시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 · 노숙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들을 위한 기금 마련 협조 요청
김진태 의원	·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	· 예전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였지만 현재는 60명 정도임.
정대영 계장	· 복지관에서 나오는 회지가 있던데, 이것을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지?	· 복지관 회지는 한 달에 한번 나오는데 한국어로도 번역하여 원하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쌍수 과장	· 건물 외관에 우리나라 기업 '현대'의 간판이 있던데 어떤 관계인지?	· 복지관 운영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건물 2층에 임대를 주고 있음.
하인호 부의장	· 한국 수도원에서 과건을 나왔다고 하였는데 혹시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는지?	· 부채춤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는 등 한국문화를 전파하려는 노력중
박성곤 의원	· 과거와 비교하여 입소자의 수가 많이 변화하였는지?	·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수리스크 내에 행려자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 많아 예전보다 입소대상이 줄어들었음.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강상례 의원(산업건설위원장)

- 단순히 노숙인들의 숙식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에게 일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사회로의 환원에 도움을 주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특히, 재활프로그램으로 목공일을 지원하면서 복지관의 많은 가구들을 입소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스템은 시설 내 운영비 절약과 직업재활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하동군에는 행려자를 돌보는 복지관은 따로 없으나, 행려자의 요청에 따라 고향 가는 차비나 하룻밤 숙박을 위한 여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
그러나 지금처럼 단순히 여비 지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이나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결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하동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확충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함. 하동읍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완료되면 그들의 숙식이나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관을 활성화시켜야 함.

▶ 김진태 의원

- 복지관 활동사진을 보다보니 입소자들의 생일파티나 공연 관람 등의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사회적인 소속감과 심리적인 행복감을 고취시키려는 복지관의 노력이 많이 보였음. 또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가를 초빙하여 심리상담을 하면서 우울증, 알콜중독 등을 치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 군의 복지관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심리적 상담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목공일, 사진촬영, 그림그리기 등 입소자들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 시설이 노숙인들의 의식주 복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5:00 , 고려인문화센터
- 내용 : 연해주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와 역사박물관 방문을 통해 올바른 정치와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상기

□ 기관개요

- 기본현황
 -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고려인 문화센터는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이라고도 함.
 - 2004년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국의 재정지원과 기부금으로 설립
 - 대지 1헥타르, 건평 3,000여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문화센터
- 기능 및 역할
 - 고려인민족 문화자치회, 아리랑 가무단, 고려신문, 한글 및 컴퓨터 교육시설, 동북아평화연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완공 후에는 고려인 역사박물관, 의료시설, 고려인 단체 활동 공간, 소수민족 활동공간,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있음.
 - 우수리스크에는 한인들이 1만 8천여 명이 살고 있어 20만 전체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센터는 극동지역 고려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민족단합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음.

방문사진



고려인 이주사에 대한 동영상 시청



연해주 독립운동사 자료 관람



연해주 독립운동사 자료 관람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시설견학 사진



고려인문화센터 내부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하인호 부의장

- 고려인문화센터와 그 이후에 방문한 이상설 유허비 등 우리민족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음.
- 연해주에는 아직도 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 그들을 위해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에 소재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발굴 ·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

▶ 손영길 의원

-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의 이주역사, 항일독립투쟁사, 강제이주역사, 현재의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씨앗, 불꽃, 들꽃, 평화의 네 가지 주제관으로 만들어 역사의 아픔을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음.
- 앞으로 우리 하동군에 설치하는 박물관이나 축제장 등에도 지역 주민과 방문자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잘 선정하고, 공간 활용과 같은 전시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여 수준 높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함.

▶ 김종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고려인문화센터는 좁게는 우수리스크, 넓게는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인 2세나 3세 등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한글을 가르쳐주거나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임.
- 우리 하동군에는 점점 결혼 이주여성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의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 습득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하동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음.

4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7:00 , 항만공사
- 내용 : 블라디보스톡의 항만 활용 사례 견학

□ 기관개요

- 주 소 : Россия, 690003,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г. Владивосток, ул. Нижнепортовая, д. 3
- 전화번호 : +7 423 230 28 93
- 홈페이지 : <http://www.pma.ru/>
- 블라디보스톡 항구는 러시아 최대의 태평양 항구들 중 하나임. 항구는 일본 바다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동부 보스포러스 해협과 골든 혼 베이, 디오 메드, 울리시스, 노비, 파리, 아약스의 영역 뿐 아니라 아무르 베이의 한 부분을 차지
- 광범위한 네트워크 레일을 갖는다는 것이 극동 항구 블라디보스톡 항의 최대 장점임.
- 항만청은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위험을 포함, 모든 해안 및 일반 화물의 넓은 범위의 수출 및 수입을 처리하며, 하역회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
-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항만들의 처리물동량은 약 5억 톤이 넘는 양에 달하고 있으며, 보스토치니항, 나호드카항과 더불어 러시아 연해주의 대표적인 항만임.

- 블라디보스톡의 상업항은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에서 운영하고 있음. 17개의 선석으로 구성. 총 3,320m의 부두에서 수출화물인 철재와 목재 등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그리고 여객을 처리.
- 블라디보스톡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에 의해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

□ 방문사진

	
<p>항구에 정박해있는 군함</p>	<p>시설견학 사진</p>
	
<p>C-56 잠수함박물관 내부관람</p>	<p>루스키대교에서 바라본 블라디보스톡항</p>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손영길 의원

- ‘러시아의 부동항’ 으로 유명한 블라디보스톡 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석탄, 원유, 구리,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붐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항임. 건자재 등 내수용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에서 수입한 경우가 우랄산맥 서쪽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물류비로 고품질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함.
- 2015년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입주를 유치하여 많은 투자를 기대하였으나, 강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함. 우리 군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우대기준과 같은 규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박성곤 의원

- 현재 부산광역시나 동해시 등의 지자체는 극동 아시아 물류 확대 및 상호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약을 맺으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자 발빠르게 뛰고 있음. 우리 군도 극동지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나 관광객 유치, 자매결연 등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과 상생에 따른 준비를 시작해야 함.

5

사할린 한인회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9(화), 15:00 , 사할린 한인회 사무실
- 내용 : 사할린 한인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이해

□ 기관개요

- 주 소 : office 102, First Entrance, 271-a, Komcomolckaya, st, Yuzhno-Sakhalinsk, Russia
- 전화번호 : +7 4242 736 646
- 홈페이지 : <http://homepy.korean.net/~sakhalink/www/>
- 사할린 한인회(The Korean Association of Sakhalin)는 2006년 준비과정을 거쳐 사단법인 '아리랑장학회'로 이어오면서 사할린 동포들에게 모국어 사업과 위안콘서트 등 문화교류에 이바지해 왔음. 2011년 10월 정기총회를 발판으로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사단법인화 등록을 완료하고 2012년 4월 정식 출범
- 현재 한·러 관계가 상당수 완화되어 우호적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특수한 환경과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민의 올바른 정착과 권리를 대변하고 러시아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민간외교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교민과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비영리단체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러시아연방의 법률을 준수하며, 특정 종교·정파를 초월하여 활동

-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진 특별회원 또는 기업회원을 포함. 정회원은 대한민국 출생자로서 사할린 활동구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꼭 두어야 하며, 2/3 임원진의 선출에 의해서 회장이 임명함.
- 자유로운 권리를 두고 있기는 하나, 협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진 및 일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회원은 매월 5,000루블, 일반회원은 매월 1,000루블을 납부하도록 함. 3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사할린 현지에 있는 동포 수는 약 2만 6천명에 달하며, 사할린주 한인회, 시한인회, 이산가족 협회, 노인회, 여성회 등의 단체를 두고 있음.

지역단위	전체 동포	1세 동포	비고
전체	26,000여 명	530여 명	
유즈노사할린스크	19,000여 명	180여 명	
코프사코브	2,800여 명	70명	
홉스크	3,000여 명	68명	
포르나이스크	2,000여 명	40명	
샤호초르스크	200여 명	37명	
마카로프	450여 명	33명	
우글레고르스크	500여 명	32명	
돌린스크	1,300여 명	28명	
토마리	200여 명	24명	
크라스노고르스크	120여 명	21명	

- 1993년 12월 10일 개원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원은 1994년 5월 사할린주 교육청 허가를 취득하였음. 사할린 교육원에는 한국의 교육부에서 3년 임기로 파견된 교육원장(김주환 2017. 3~2020. 2)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이 한인2세나 한인3세, 또는 기타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방문사진



한인문화센터 입구



사할린 한인회와의 간담회



사할린 한인회 학생들의 작품 감상



새 고려신문 사진



사할린 한국교육원 운영 현황 설명



사할린 희생자 사망동포 위령탑 참배

□ 질의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
김진태 의원	· 사할린에 첫 한인이주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인가?	· 1870년~90년경에 첫 한인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손영길 의원	· 사할린주의 재외동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사할린주 전체 26,000여 명 정도이며,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9,000여 명이 살고 있고, 그중 1세대 동포는 180여 명 정도임.
강상례 의원	· 사할린 한인회장도 선거로 선출되는지? 그렇다면 임기는 몇년인가?	· 사할린 한인회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박성곤 의원	· 사할린의 한인들에 대한 차별은 없는지? 한인들의 정부 요직 진출 등이 가능한지?	· 예전에는 민족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 한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차별이 많이 철폐된 상태며 사할린주의 부주지사 등의 요직에도 한인이 진출한 사례가 있음.
김종환 의원	· 사할린주에도 의회체도가 있는가?	· 사할린에도 주의회가 있으며, 2012년 10월에 개최하였고, 총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원 임기는 5년으로 2017년 만료 예정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는 1997년 3월에 개최하였고, 총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임.
하인호 부의장	· 한국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를 하고 있는가?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경기도 안산시와 2011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코르사코브시는 2010년 8월에 강원도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최근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정의근 의장

-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상당수가 머나먼 땅 연해주로 끌려와 탄광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과 임금을 착취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음. 강제징용되어 갖은 고생을 겪은 그들에 대한 위령탑이 한인문화센터 옆에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임.
- 또한 독립운동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음. 앞으로 일제강점기와 같이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와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겨봄.
- 우리 군과 사할린 한인회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이나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으면 함.

6

사할린 재래시장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30(수), 16:00 , 사할린 재래시장

○ 내용 : 사할린 재래시장 운영사례에 대한 이해

□ 기관개요

○ 주 소 : Сахалинская, Sakhalinskaya ul., 71, Yuzhno-Sakhalinsk, Сахалинская, 러시아 693005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00 ~ 오후 06:00 (일요일 휴무)

□ 방문사진



사할린 재래시장 방문



사할린 재래시장 방문



사할린 재래시장 방문



사할린 재래시장 외관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박성곤 의원

- 우리가 방문한 사할린 재래시장은 사할린 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담당 관청에 신고 후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함.
- 사할린의 재래시장도 시장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별로 상점이 질서정연하게 조성된 것이 인상깊었음. 잣과 같은 견과류 등 몇 가지 품목은 누구나 시식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의 김치를 파는 상점도 보였음.
- 일단 시장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 등을 구매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의 시장도 시설 현대화와 위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음.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31(목), 10:00 , 사할린 향토박물관
- 내용 : 미래 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향토박물관 체험

□ 기관개요

- 주 소 : office 102, First Entrance, 271-a, Komcomolckaya, st,
Yuzhno-Sakhalinsk, Russia
- 전화번호 : +7 4242 72 75 55
- 홈페이지 : <http://sakhalinmuseum.ru/>
- 개관시간 : 월요일 휴관, 수-금, 일 11:00~18:00 / 토 11:00~20:00
- 사할린 지역 박물관 중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지어진 이래 점차적으로 극동의 인문한 연구센터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함.
- 1896년 알렉산더에 의해 문을 열었으며, 사할린 지역의 역사, 지질, 식물 등 다양한 컬렉션을 정리하고 있음.
- 박물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인 100루블.
- 테마투어, 시티투어, 직업투어, 이 외에도 강의나 문화 행사들을 제공하기도 함.

□ 방문사진



사할린 향토박물관 입구



사할린 전통 생활도구 관람



사할린 전쟁사 관람



사할린 이주 한인 유물 관람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하인호 부의장

- 사할린의 식물 및 동물, 사할린 주의 역사, 사할린 주민들의 전통 의상, 생활도구, 사할린 이주 한인들의 의식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 등 사할린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잘 전시된 향토박물관이었음.
- 우리 군에도 하동군의 역사, 지리, 식생, 의식주 문화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8 폐기물처리장 Spetszavod No. 1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8. 31(목), 17:00 , Spetszavod No. 1

○ 내용 : 폐기물 활용 현황 파악

□ 기관개요

○ 주 소 : Borodinskaya ul., 28, Vladivostok, Primorskiy kray,
러시아 690105

○ 전화번호 : +7 423 232 56 52

○ 홈페이지 : <http://www.spzv.ru/>

○ 본 폐기물 처리업체는 블라디보스톡 교외 매립지를 근거로 블라디보스톡의 폐기물 처리를 담당

○ 러시아는 지역별로 쓰레기 처리업체가 존재하며, 면적 대비 인구가 적고, 도로 등 인프라 개발 정도가 미흡해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는 편임.

○ 주택 및 도시, 기업 모두에서 대형 건설 목재 및 고체 폐기물들의 재활용을 수행하는 블라디보스톡의 유일한 기업으로,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분쇄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함.

○ 본 업체는 소각장에서의 처분 또는 매립을 위해 자체 운송 수단을 통해 기업 및 시민으로부터 가정 폐기물을 수거 및 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소 생성물은 폐열 보일러를 통과하며, 주로 자체 설비에 사용되고 주거 지역의 열 공급을 위한 열 네트워크 수집기로 이동. 연기와 가스는 2단계 필터에서 먼지가 제거됨. 필터청소 후, 침전되어 전기사이클론으로 95% 제거
- 블라디보스톡의 고체 가정 폐기물 처리 단지는 베르시야니 계곡의 레닌스키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고품질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5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압축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운반되어짐.

□ 방문사진

	
<p>폐기물처리장 전경</p>	<p>폐기물 처리 사진</p>
	
<p>폐기물 처리 사진</p>	<p>폐기물 처리 사진</p>

□ 질의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
손영길 의원	· 매립시설은 여기에 안보이는데 따로 있는지?	· 매립되는 폐기물은 계곡의 레닌스키 지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단지로서 파쇄 및 압축을 하여 매립하고 있음.
박성곤 의원	· 블라디보스톡 시내 모든 쓰레기는 이곳에서 처리하는가?	· 블라디보스톡 시내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서 처리함. 러시아는 지역별로 쓰레기를 처리함.
정대영 계장	· 소각 후 남는 열을 난방이나 기타 다른 곳에 이용하는 사례는?	· 러시아는 방대한 땅을 가지고 있어 쓰레기를 주로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하는 양은 일부분임. 이곳 소각시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각열은 주로 자체 설비에만 사용
김진태 의원	· 가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분리배출이라던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 가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집 주변에 폐기물 수집통이 있음. 주민들은 폐기물통에 쓰레기를 갖다 넣기만 하면 됨. · 한국처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배출함. ·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해서 처리 업체가 소각 및 매립함.
정의근 의장	· 폐자원의 재활용과 재가공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도 부족한데, 쓰레기 처리 후 폐자원 재활용 및 재가공율은 15% 수준임.
이쌍수 과장	· 블라디보스톡은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가?	· 시설은 장기간 적자 운영중임.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고품폐기물이 예상보다 부족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 폐기물량은 30만톤이나 현재 처리량은 20만톤 정도임.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손영길 의원

- 러시아는 방대한 땅을 가지고 있어 폐기물 처리는 주로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는 일부분임. 이런 특성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이 우리나라에 비해 편리하다고는 생각됨.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구분 없이 배출하기만 하면 자체 분리하여 소각, 재활용, 매립 처리함.
-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이 편리하고 거리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쓰레기 중간 수집통 설치나, 길거리에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나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촌지역 마을별로는 쓰레기를 공동으로 배출해 놓을 수 있는 클린 하우스 설치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1(금), 10:00 ,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 내용 :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운영현황에 대한 이해

□ 기관개요

- 주 소 : pr. Ostryakova, 13, Vladivostok, Primorskiy kray,
러시아 690048
- 블라디보스톡에는 현대화된 시설 내의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노점상의 형태로 매주 금, 토, 일요일에 혁명광장이 있는 중앙광장에서 재래시장이 열림.
- 이 시장은 주정부에서 농촌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장으로, 도시민과 농민을 연결해주는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보면 됨.
- 2015년에 처음 시장이 열려 2017년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면서 1일 1~2만 명이 애용하며 시장이 열릴 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주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며, 벌꿀이나 통조림, 반찬류 등 다양한 품목이 있음.

□ 방문사진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견학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견학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견학



블라디보스톡 재래시장 견학



주정부 청사 앞 시장담당 직원과의 기념사진



주정부 청사 앞 혁명광장의 재래시장 전경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강상례 의원(산업건설위원장)

- 연해주 주정부 직원의 안내로 방문한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5일장과 같은 개념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직거래 장터였음. 이는 유통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마진을 줄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또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시장 운영이라고 느꼈음.

▶ 김종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블라디보스톡은 날씨가 추운 극동지역이라 많은 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블라디보스톡이나 사할린 등 극동러시아 지역과 우리 군이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하동의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수출판로를 개척해보아도 좋을 것 같음. 특히 연해주 지역은 현재도 많은 한인 동포가 살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점점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점차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1(금), 11:30 , 극동연방대학
- 내용 : 러시아의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 기관개요

- 주 소 : Borodinskaya ul., 28, Vladivostok, Primorskiy kray,
러시아 690105
- 전화번호 : +7 423 265 24 24
- 홈페이지 : <http://www.dvfu.ru/>
- 러시아의 국립대학 중 하나로 러시아 제국 시절이었던 1899년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칙령에 의해 창립. 소련의 강철의 대원수에 의해 1939년 일시적으로 폐쇄된 적도 있었지만 니키타 흐루쇼프가 1956년에 부활시켰고, 2010년 10월 8일에 극동국립대학교에서 극동연방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체제 개편이 있었음.
- 현재 총장은 Никита Анисимов(니키타 아니시모프)임.
- 학생 수는 41,500여 명이며 교직원 수는 1,600여 명임.
- 학교의 대부분의 학과가 2012년에 블라디보스톡 시가지 앞바다에 있는 루스키섬으로 캠퍼스를 옮겼음. 이 섬은 2012 APEC 정상회의 회담을 위해 세계 최장 길이(L=1,104m)의 사장교로 이은 섬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가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로 만들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정부가 상당히 신경 써서 키우는 도시인만큼 새로 옮긴 학교 시설은 무척 깨끗하고 세련됨.

-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학교인 만큼 동아시아 관련된 분야 학과가 많으며 당연히 한국학대학, 한국어과도 존재함. 과거 연해주를 지배했던 발해 관련된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박물관에는 발해 유물이 많이 있음.
- 대한민국의 대학교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며, 33개 학교에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음.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에서도 교환학생이 옴.
- 2008년 러시아연방정부로부터 러시아 최상위 5위권 대학에 선정됨.
- 대부분의 과정은 러시아어로 진행되나, 10여개 석사(2년)는 영어로도 진행됨.
- 2016년 기준 연간 등록금은 250~500만원 / 어학연수 과정은 10개월 코스로 약 175만원 / 예비학부 과정은 11개월 코스로 약 180만원임.
- 캠퍼스는 섬에 있어서 경치가 매우 좋으며 규모가 매우 큼. 모든 건물 앞에 경비가 있어서 반드시 통행증(통행증 내지 여권/비자)을 제시해야 함. 기숙사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강의동 양쪽으로 둘러져있고, 왼쪽으로 8개의 기숙사, 오른쪽으로 3개의 기숙사가 있음. 학교 안에 6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함.

방문사진



극동연방대학 입구



대학셔틀버스 탑승장



극동연방대학 내 운동장



극동연방대학 학생 체육센터 수영장



극동연방대학 시설 탐방



기숙사 내부 사진

□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하인호 부의장

- 극동연방대학 캠퍼스는 루스키섬에 위치하고 있어 경치가 매우 좋으며, 캠퍼스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자그마한 해변도 있음. 해변가에는 공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공원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나 커플들이 많다고 함. 이렇게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를 위하여 적극 개방되어 지역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으로 보임.
- 우리군의 교육시설도 현재 군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개방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시설로써 예산 절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해보아야 함.

▶ 김진태 의원

- 루스키섬은 예전에는 군사용으로만 이용되던 지역이라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루스키대교를 건설하여 루스키섬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또한 루스키섬은 아직까지 원시림이 우거져있고, 동해바다와 마주한 절경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여하에 따라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음.
- 우리가 방문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의 전체 준비과정을 사전에 견학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음.

※ 제3차 동방경제포럼 :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포럼. 제3회 포럼은 2017년 9월 6-7일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한중일 정상과 3국의 고위관료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외가 방문하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양국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함.)

* 연수성과 및 연수소감 (정의근 의장)

- 해외 도시 우수 사례 체험을 통해 군정 접목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현 시행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고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발판이 마련됨.
- 극동러시아의 주요 수산물 생산과 소비지인 블라디보스톡 일원의 해양항만시설, 재래식 농수산물시장 견학 등을 통해 러시아 농수산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음.
- 사할린 한인회 방문으로 동포들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고, 한인회의 역할로 한인 생활보호, 한국 교민의 단합과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친선 도모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재외 한인사회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되었음.
- 연해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정치와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김.
- 비교시찰을 통해 다른 국가나 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금번 비교시찰과 일련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하동에 접목하고픈 기타사례

① 도로 건설



인도 보수공사 전경



인도 보수공사 - 경계석 재활용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가 도로 - 인도 전경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가 도로 - 인도 전경

- 사할린의 경제사정은 우리나라 70~80년대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음. 시가지 중심도로의 경우 포장되어 있으나, 시가지 중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지선도로의 경우 대부분 비포장도로로 형성되어 있음.
- 시가지 도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었으며, 재정형편상 자재 재활용 등의 사례가 많이 목격되었음.
- 도로(인도)의 경우 저비용 자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음. 우리군의 경우도 주택밀집지역의 농촌지역의 경우 예산절감과 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저비용자재나 재활용자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② 공원 조성



가가린공원 내 호수 전경



가가린공원 내 축구장



가가린공원의 관람 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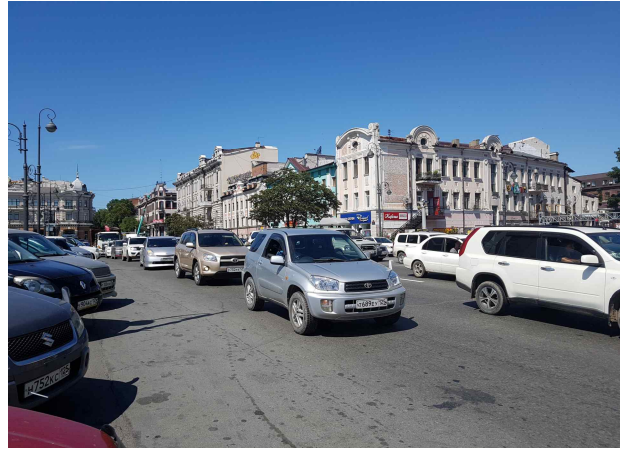
가가린공원 내 푸드트럭

- 사할린에 소재한 가가린 공원은 큰 호수와 울창한 숲이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주변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조성해 놓은 점에 매우 감탄하였음.
- 호수 주변에는 관광객이 타는 관람 기차의 기차길이 조성되어 있고, 호수에는 오리배나 작은 범선 등이 있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었음.
- 또한 공원 곳곳에 시민들이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가 깔린 축구장과 테니스 코트 등이 있었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다양한 푸드트럭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관광, 휴양, 운동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음.
- 우리 하동 북천에도 아름다운 자연과 레일바이크 등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여 관광·휴양 복합공원을 조성해 보았으면 함.

③ 교통(차량 정체 및 주차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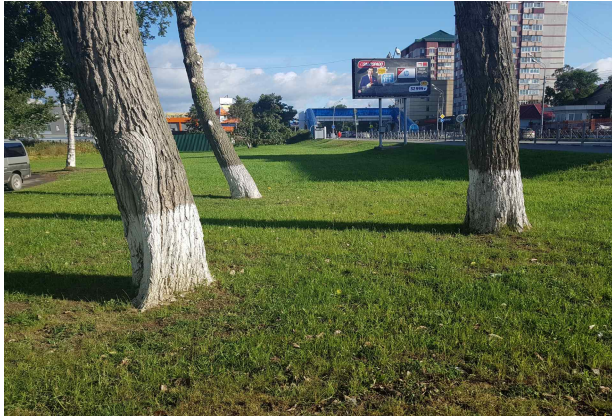
혁명광장 앞 도로 - 차량 정체



주정부 청사 앞 도로 - 차량 정체

- 블라디보스톡은 항구를 연접하여 시가지가 오래전에 형성되고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시설물 주변 도로의 차량 정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주정부 청사와 혁명광장 주변의 스베트란스카야 거리는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차량 정체가 너무 극심함.
-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4차선 왕복도로를 일방향 도로로 교통체계를 전환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토·일요일 재래시장 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는 심각한 차량정체가 일어나고 있음.
- 하동군의 경우도 차량정체가 심하게 일어나는 시가지 내 구간에 대해 일방향 통행을 검토하여, 차량정체 및 주차문제 해소에 능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④ 가로수 관리



사할린의 중심가 도로 - 가로수 관리



블라디보스톡 중심가 도로 - 가로수 관리

- 사할린의 경제사정은 우리나라의 70~80년대,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의 80~90년대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도로변의 녹지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특히 가로수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성장 여건이 좋은데도 대부분의 가로수에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가로수에 살충제를 도포해 놓고 있었고 가로수의 발육상태 또한 잘 관리되고 있었음.
- 우리 군에서도 모든 가로수에 대해서 식재 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